은혜의 법칙

성경말씀: 마20:1-16

배경

틀의 문제, 하나님의 통치, 신약과 구약, 그리스도인의 삶, 교회 등에 대해 고민함.
세상의 법칙: 얼마나 능력 있게 일하냐에 따라 받는 액수가 정해짐, 공짜 No
하나님의 법칙: 우리의 노력이나 일에 상관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법칙
이것은 우리의 이성과 맞지 않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한다(구원 전과 구원 후).
요3:16,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엡2:8, 구원 받을 때에 은혜로 받음
롬8:32, 구원 받은 이후의 우리의 필요 역시 은혜로 받는다. 여기에 걸려 넘어진다.
복을 받으려면 주의 일을 많이 해야 한다(주일성수, 십일조, 성경 읽기, 기도, 전도, 교회 일)는 강박관념이 팽배하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 율법과 은혜를 구분하지 못해서 그렇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모토: '진인사 대천명'

배경(마19:16-30)

1. 부자 청년 이야기
예수님의 판결(23-26), 부자는 아예 구원받는 것 자체가 어렵다. 누가 부자인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믿는 모든 사람이 부자이다. 당신은 어떤가? ★★★
2. 베드로의 질문(27)
이것은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의 공통적인 관점이다.
어떤 공로를 행하면 거기에 따른 보답이 있다는 율법주의 관점의 요약이다.
구원 받은 이후에 많은 공로를 세웠는데 여기에 합당한 보상은 무엇입니까?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관계의 나무(요15장)와 행위의 나무
타락한 사람 속에는 행위로 무엇을 얻으려는 본성이 내재되어 있다(구원 전과 구원 후).
출19:4-5, 율법의 수여, 율법의 조건
율법: 무엇을 하고 지키면 거기에 따른 보상이 있는 시스템
3. 예수님의 대답
재판한다, 보상이 있다. 100배나 받는다. 즉 생각한 것 이상으로 받는다. 엄청난 수익률
은행 이자: 6%, 100배는 10,000%,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의 행위나 수고에 어울리지 않게 보상을 받는다는 뜻이다.
어울리게 보상을 받으면 그것은 행위에 따른 율법 체계이다.
그러나 어울리지 않게 보상을 받으면 그것은 은혜 체계이다.
구원 전과 구원 후 모두 은혜 체계이다.
4. 경고의 말씀(30)
그러나 행위 체계로 인식하는 자들이 있다. 30절의 설명이 마20:1-16이다.

선한 포도원 주인(마20:1-16)

이것은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고 하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의 삶의 태도에 관한 것이다.
하늘의 왕국: 하늘의 통치, 예수님은 하늘 방식을 설명해 주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보여 주신다.
포도원 주인: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포도원 품꾼들의 복지에 관심을 두신다.
이른 아침 정시에 나가 일꾼들을 구하고 1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기로 합의함(계약을 맺음).
그 당시 일꾼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이다.
즉 그 날의 필요를 그 날 벌어서 채워야 한다(신24:15).
3시, 6시, 9시, 11시(지금 시간으로는 오전 9, 12, 오후 3, 5시)
이들에게는 계약이 없이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주겠다고 약속함.

품삯을 주는 때가 왔다. 마지막에 온 자부터 품삯을 주기 시작함
1시간 일했는데 1 데나리온을 받음: 나머지 사람들은 계산하기 시작함, 3, 6, 9, 12 데나리온
그러나 모두 1 데나리온을 받음. 다른 사람들은 불평이 없는데 처음에 온 사람들은 불평을 함.
지금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다음과 같다: 영어 코스에서 학점을 주는 교수, 잘 한 학생과 겨우 한 학생 모두 A를 받음. 누가 불평하는가? 잘 한 학생이 불평한다. 세상의 법칙
질문: 여러분은 주인이 혹은 교수가 공평하다고 느낍니까?
왜 공평치 않다고 느낍니까? 행위 가치관 때문이다.
처음 온 사람들 외에는 모두 자기가 받을 것 이상으로 받았다. 즉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로 받았다.
누가 불평하는가? 계약을 맺은 사람들 ★★★
눅15장 탕자의 비유에서 큰 아들과 같은 사람이 교회에 많다. 나는 가치가 있으나 동생은 가치가 없다.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든지 부족한 사람이 오면 받아주신다(구원 전과 후). ★★★
나머지 사람들은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받을 줄 알았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 이상의 것을 받았다.

1. 하나님의 일을 계약으로 하지 말라.

구원받은 뒤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무엇을 하면 무엇을 주시겠지'라는 율법주의 시스템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 ★★★
처음에 온 사람은 자기 눈에 의롭고 옳은 사람이다.
이들은 1 데나리온으로 약정을 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1 데나리온을 받자 불평함.
그들이 주인의 관대함을 기대했다면 약정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
주인은 은혜가 아니라 빚을 갚듯이 이들에게 돈을 지급했다. 당사자와 주인 사이에 기쁨이 없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 교회에서 언제나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한다(모든 일에서). ★★★

2. 하나님은 사람의 필요를 아신다.

3, 6, 9, 11시에 고용된 사람들은 실제로 주인의 필요가 아니라 그들의 필요 때문에 고용되었다.
이들은 적게 일하고도 하루에 필요한 임금을 받았다. 즉 자기들의 행위에 대한 함당한 보상 이상의 것을 받았다. 그들의 계약하지 않았다. 무익한 종이니 써 주시기만 해도 감사하다는 자세 ★★★
이에 주인은 빚이 아니라 은혜로 이들에게 돈을 주었다. 당사자와 주인 사이에 기쁨이 있다.
특별히 11시에 온 사람들은 그 기쁨이 말할 수 없이 컸고 주인의 기쁨도 가장 컸다.
예수님은 여기서 행위에 따른 노동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곳, 교회의 법칙을 말한다.
이 사람들은 고용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11시간을 기다렸으나 가장 먼저 임금을 받았다.
그것도 시간에 어울리지 않게 12배나 받았다. ★★★ 마지막이 cjda이 된다
주인은 자기 필요가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따라 그들을 고용했다. 은혜의 하나님 ★★★

3.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
동기가 문제다. 베드로의 질문을 다시 보자. 일의 동기가 나쁘면 계약을 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 ★★★
40년 간 교회에서 열심히 일한 어머니가 암에 걸렸다. 아들의 태도 "열심히 일한 대가가 이것이란 말인가?" 우리는 어떨까? ★★★
현재 우리는 어떤가? 목사, 집사, 교사, 위원장, 식사, 설거지, 청소, 찬양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지 않는 경우가 교회에 많다(엡6:6). ★★★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것을 부추긴다(주의 일, 일천 번제, 다니엘 21일 기도 등등).
이런 것은 구약의 율법 시대에 가능한 것이다(느5:19; 13:31).
롬4:4-5, 구원뿐만 아니라 성화에도 적용됨. ★★★

4. 그런데 부름 받은 자는 많은데 선정된 자는 적다(16절).

결론

1. 당신은 어디에 속했는가?

정시에 와서 계약하는 사람인가? 11시에 와서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은혜로 받으려는 사람인가?

2. 하나님의 법칙은 행위 법칙이 아니라 은혜 법칙이다.